

한미동맹 60년 국제학술대회 1차관 축하

이호철 회장님,
함재봉 원장님,
하영선 이사장님,
국내외 저명학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올해는 한미동맹 60주년이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첫 해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그 어느 때 보다 거셌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미동맹의 의의와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다가오는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한미동맹의 진화와 미래를 짚어보는 시의적절하고 뜻깊은 학술회의를 개최한 한국 국제정치학회와 아산정책연구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의미있는 자리에서 축사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60주년에는 다른 해와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부부가 60년간 해로하면, ‘회혼식(回婚式)’이라고 하여 다시 결혼식을 올리면서 축하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서구 문화권에서도 Diamond Jubilee라고 하여 60주년을 크게 축하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 60주년은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서 배우자에 대한 인연을 기리며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 보셨을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지요. 축복을 기원하는 구절이지요. 그런데 저는 한미동맹 축사를 생각하면서 문득 이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한미동맹은 여전히 진행중이지만, 한미동맹의 시작 당시와 현재를 생각하고 나아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구절을 한미동맹에 적용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생존 보장을 위한 치열한 몸부림으로부터 시작한 한미동맹은 지난 60년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왔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으며, G20의 당당한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한 때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어나기를 바라는 것에 비유되기도 했던 한국의 민주주의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이러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한 든든한 기반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안정을 확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번영을 넘어 역내 이웃 국가들의 안정과 성장에도 기여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미동맹은 국제적 공공재 기능을 수행하며,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도 이바지해왔습니다.

이제 한미동맹은 기존의 안보협력을 넘어서 정치·경제·문화·인적 교류 분야에서의 폭넓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였고, 이제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렇게 성장을 거듭하여 온 한미동맹은 금년 5월 박대통령의 방미시 양국 정상에 의해 선포된 이번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통하여 이제 ‘신뢰동맹’으로 또 다시 한 단계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정상이 발표한 이 선언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의 핵심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협력, 나아가 지구촌의 번영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미동맹이 지향해 나가기를 희망하는 세 가지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닦아 나가자는 비전입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평화를 지키고(peace keeping), 강력한 압박과 설득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peace making) 나가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평화협력 프로세스를 추진하여 동북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비전입니다. 환경, 원자력 안전 등 연성이슈부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 점차 다른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혀 나가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 번째는 자유, 인권, 법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확산하고, 빈곤 퇴치, 기후 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대처 함으로써 전 인류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자는 비전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라는 시련 속에서 탄생한 한미 동맹은 포괄적 전략동맹 및 글로벌 파트너십 그리고 신뢰동맹으로 진화되어 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고 언급한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지난 오랜 세월동안 한미동맹은 내외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았고 또한 곡절도 많이 겪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과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 오히려 성장의 자양분이 되면서 6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공자께서 말씀하신 원숙한 ‘이순’(耳順)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미동맹은 이러한 진화와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여 향후에도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전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10년 뒤 70주년이 되는 시기에는 더욱 원숙하여져서 ‘종심’(從心)과 ‘이심전심’(以心傳心)의 경지에 이르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여 말씀하실 여러 의견들은 성장의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이와 같은 원대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국내외 석학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고견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끝/